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 연구*

임 미 진**

요약

본 연구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남한에서 발간된 일간지를 대상으로 장편연재소설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내용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의 목록은 약 40여 편이다.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신문의 정간과 휴간이 반복되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장편이 발표된 셈이다. 이 시기 작품은 대략 70%가 미완으로 발표된다. 미완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설은 신문이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해 해방의 사건을 '예측(prediction)'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시기 소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시대 동공간을 배경으로 당대 현실을 그리는 소설 (2)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민족과 독립운동의 이념과 의의를 살펴보는 소설, (3) 작가 자신의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청년이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좌절과 희망, 분투를 그리는 소설이다. 이들 소설은 해방이라는 사건을 끊임없이 재해석, 재평가하고 과거에 대해 숙고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해방 후 민족공동체재건의 주역이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주제어: 해방기, 신문연재소설, 장편소설, 총체성, 현실인식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4274)

** 한남대 탈메이지교양교육대 조교수

목차

1. 서론
2. 해방의 격동, 장편의 시대
3. 완결되지 않은 현재의 서사
4. 결론

1. 서론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남한에서 발간한 일간지는 대략 7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¹⁾ 정치적 불안으로 상당수의 신문이 폐간과 복간을 반복하였지만, 이 시기 신문은 단순한 미디어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해방기²⁾ 신문은 상업적 이윤추구를 넘어 국가건설의 방향성을 개진하면서 국민의 구성 및 계몽에 앞장섰다.³⁾ 특히 정기적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신문연재소설은 대중에게 신문의 이념과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1) 1947년 9월 미군정이 파악한 통계자료(『조사월보』 24)에 따르면 9월 당시 일간신문은 57종, 주간신문 49종, 잡지 154종 등 총 273종의 정기간행물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윤덕영이 구체적인 실물로 확인한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남한에서 발간된 일간지는 중앙일간지 대략 45종, 지방일간지는 30종에 이른다.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2) 본 연구에서 '해방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를 의미한다. 논자에 따라 '해방직후' '해방공간' '해방기' '해방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해방공간과 해방직후는 1945년 8월 15일-1948년 정부수립직전까지를 의미하고, 해방기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해방 후는 한국전쟁 직전 또는 그 이후까지 포괄할 때 사용한다. 해방공간은 역사의 연속성보다는 단절성을 부각하며, 해방후는 표현에 따라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해방기라는 용어는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를 연결하는 시기적 구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데 유용하다.

3) 해방 직후의 좌,우의 정치세력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대변하는 신문을 발간한다. 중간적 입장을 표방하는 신문은 비교적 덜했지만, 해방기 신문은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견지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편집했으며 좌,우의 이념에 따라 신문사가 공격당하기도 했다. 윤덕영, 앞의 논문, 344-355면.

있는 장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태준, 이원조, 염상섭, 김남천, 김동리 등 당시 주류작가들은 신문의 편집국장, 편집위원 등을 맡으면서 신문의 방향과 역할을 설정하는 한편, 창작을 통해 현실인식의 좌표를 설정하고 정치적 이념의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신문연재소설은 1)정치적 혼란, 2)신문의 정간과 휴간으로 인한 미완, 3)자료의 분실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그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김남천, 염상섭, 이태준, 김동리 등 주요작가의 작가론과 작품론에 치중되어 있다. 그마저도 김남천의 「시월」(『광명일보』, 1947.1~1947.8.14), 염상섭의 「무풍대」(『호남신문』, 1949.7.1.~1949.9.25.), 김동리의 「해방」(『동아일보』, 1949.9.1.~1950.2.16) 등은 2000년대 이후 자료가 정리,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⁴⁾

한국문단에서 신문연재소설은 문학의 발전, 특히 장편소설의 생성발전 및 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⁵⁾ 신문연재소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는 신문의 학예면의 비중이 늘고 신문소설의 인기가 신문 구독 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던 시기였다.⁶⁾ 한국근대 문학의 첫 장편소설 「무정」이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후, 한국근대문학과 저널리즘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다. 1920~30년대 신문의 학예란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근대장편소설은 신문에 기대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 “現在 朝鮮에잇서 長篇小說이라면 主로 新聞小說이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⁸⁾ 문단사적 관점에서 신

4) 김남천의 「시월」은 이희환이 2007년에(「자료:김남천 연재소설 『시월』, 『민족문학사연구』 25), 김동리의 「해방」은 김주현이 2002-2003년에(「자료:김동리의 『해방』」 『어문론총』 37-39), 염상섭의 「무풍대」는 안서현이 2013년에(「曉風」이 불지 않는 곳: 염상섭의 『無風帶』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39) 처음으로 그 존재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5) 임화, 「신문화와 신문」, 『조광』, 1940.10.

6) 김한식,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237면.

7) 김남천, 「신문과 문단」, 『조광』, 1940.10.

8) 김남천, 「문학건설좌담회: 장편소설의 핵심」, 『조선일보』, 1939.1.3.

문은 “창작활동의 본거지”, “창조의 작업장”이라는 의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⁹⁾ 1930년대는 장편소설뿐만 아니라 로만개조론, 본격소설론, 통속소설론, 대중소설론 등의 장편소설론도 쏟아져 나온다. 이로 인하여 그간 장편소설에 관한 연구도 주로 1930년대에 집중되어왔다. 1940년대 문학의 암흑기를 거치고 맞이한 해방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문화에 대한 갈망”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면서 출판계의 활기를 가져온다.¹⁰⁾ 이를 방증하듯,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단계를 논의할 때 해방직후부터 1950년대는 ‘신문의 시대’로 일컬어진다.¹¹⁾ 해방기의 신문 발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해방기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신문에 안정적으로 소설을 연재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장편의 경우는 신문에 연재에 고를 한 직후 미군정에 의해 신문발간이 중단되기도 하고 작가의 정치적 선택, 또는 좌,우익 지지자들의 신문사 습격 등으로 인하여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는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체계적인 연구의 공백을 가져온다.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 연구는 그 전체적인 목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¹²⁾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에 관한 연구는 임무출,¹³⁾ 김형규,¹⁴⁾ 김재

-
- 9) 김병익, 『한국문단사』, 문학과지성사, 1973, 95-96면.
 10) 襄湖, 「出版文化의가는길」, 경향신문, 1948.11.28.
 11) 이봉범은 “해방~1950년대는 신문의 시대, 1960년대는 라디오의 시대, 1970년대는 텔레비전의 시대”라고 했다. 이봉범, 「8.15 해방 후 신문의 문화적 기능과 신문소설」,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2, 295-296면.
 12) 한국근대문학과 장편소설의 작품목록은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작품연표』(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와 송하춘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을 참조할 수 있다. 권영민의 저서는 1894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시, 소설, 평론, 희곡 등 문학작품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해방기의 작품목록 중에서는 장, 단편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작품이 있다. 송하춘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1917-1950)』은 1917-1950년에 발표된 장편소설의 서지사항과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해방기의 작품목록 중에는 일부 빠진 것이 있다.
 13) 임무출, 「해방 직후 한국장편 역사소설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1992.
 14) 김형규, 「해방기 장편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1.

필,¹⁵⁾ 이봉범¹⁶⁾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해방기 장편소설의 의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일부 작품과 작가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임무출은 일부 역사소설에, 김형규와 김재필은 3~4작품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장편소설의 목록도 극히 일부만 소개하고 있다. 이봉범은 1945년 8.15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근 30여 년의 신문연재소설의 시기별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30년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 1945~1950년 시기의 장편소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밖에도 1948~1962년까지 대구경북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한 한명환 외의 연구도 눈여겨볼 만하다.¹⁷⁾ 1945~1950년 시기의 장편소설은 조사 내용에 없지만, 해방 후 신문연재소설의 발굴과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앞서 언급한, 1),2),3)의 원인으로 인하여 신문연재소설, 특히 장편소설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물론 연구의 미진함은 1),2),3)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기실, 해방 직후 김남천, 한설야 등의 작가들은 창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1945년 12월 12일, ‘아서원 좌담회’로 알려진, 「조선문학의 지향」이라는 좌담회에서 한설야, 김남천, 임화, 이기영 등의 문인이 논의한 화두는 창작실천에 대한 고민, 즉 한설야가 토로하고 있듯이 “쓸것이 많은것 같으나 포착할수가 없다”는 방향상실이였다.¹⁸⁾ 격변하는 당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작가들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의 부재로 인한 창작의 불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이

15) 김재필, 「해방기 장편소설 연구:현실인식 및 전망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5.

16) 이봉범, 앞의 논문.

17) 한명환·김일영·남금희·안미영, 「해방 이후 대구·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 조사 연구:격동기(1948-1962) 대구경북지역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18) 좌담회, 「조선문학의 지향」, 『예술』, 1946.1.

후 연구자들에게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해방기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확보할 수 없는 ‘소설의 사상성과 예술성의 부재’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해방기 소설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이 시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설야가 방향성과 사상의 부재로 인한 소설창작의 불가능을 언급했다면, 그 자리에서 김남천은 “쓰면서 자신을 구체화하며 진보”시켜야 하는 것이 리얼리스트 작가의 몫이라고 말한다.¹⁹⁾ 루카치에 의하면 서사시는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하는 반면,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서 이를 구성하는 장르로, 소설의 주인공은 총체성을 찾는 자다.²⁰⁾ 한설야의 토로가 ‘숨겨진 삶의 총체성’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 김남천의 반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 찾아야 한다는 것, 그 길을 ‘찾는 자’로서의 소설 주인공에게 방점이 있다. 요컨대 김남천은 당대 장편소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김남천 뿐만 아니라 안희남도 이 시기를 “長篇小說의 時代”라고 언급한다.²¹⁾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해방기 작가들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써 내려간 장편의 서사를 찾아내어 이를 목록화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이 시기 신문연재소설의 목록을 정리하고 그 내용적 의미와 가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해방기 신문연재소설은 일부 작가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시기 신문연재소설 중 장편을 중심으로 그 목록을 정리하고 대략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19) 위의 글.

20) Georg Lukács,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98, 64면.

21) 안희남, 「建設, 長篇小說時代」, 『중앙신문』, 1945.12.15. 안희남은 1945년 10월 징용에서 돌아온 직후 12월부터 잡지 『민성』에 장편 「炭坑」(1945.12~1947.3)을 연재한다. 「탄갱」과 관련해서는 임미진, 「강제징용의 서사, 안희남의 「탄갱」 연구」, 『우리어문연구』 66, 우리어문학회, 2020.1. 참조.

목표로 한다. 이는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목록과 그 대략적인 의미를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촉발하고, 향후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레퍼런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근현대 장편소설의 영역을 한 단계 진전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해방의 격동, 장편의 시대

안희남은 1945년 12월 『中央新聞』 「建設, 長篇小說時代」라는 짧막한 논설에서 러시아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長篇小說은 항상, 社會的飛躍 民族的建設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八·一五以後 우리는 歷史적으로 커다란變動을 마지해 偉大한 鬪爭과 建設과 發展과 飛躍을 치르며 있는 것을 안다. 얼마든지 巨大한 스케일 안에서 주인공의 性格이 넉넉히 발전할 수 있는 正히 長篇小說의 時代를 마치고 있다”라고 언급한다. 안희남의 말대로 해방기는 ‘장편소설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 시기 발표한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시기순으로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45.8~1950.6 신문연재 장편소설 목록²²⁾

번호	저자	작품명	발표지	발표년도	횟수	완결 여부	비고
1	김남천 (金南天)	1945年, 8.15	自由新聞	1945.10.15. ~1946.6.28	165	미완	
2	박종화 (朴種和)	民族	中央新聞	1945.11.5~ 1946.7.22.	205	완결	단행본출간 『민족』上下(예문각, 1947)
3	방인근 (方仁根)	愛國者	大東新聞	1946.2.21.~ 1946.5.12	46	미완	
4	함대훈	戰爭과	家政新聞	1946.3.22.(59	미완	『青春譜』(京鄉

22) [표]의 작품명과 신문명 표기는 연재 당시 원문 그대로 표기했다. 단, 작가명은 한글로 표기하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한자명을 기입했다.

	(咸大勳)	武裝平和		?~1946.6.3 0, ²³⁾			出版社,1947) /1946.3.25.(2회) 부터 확인.
5	이태준 (李泰俊)	不死鳥	現代日報	1946.3.28.~ 1946.7.27	95	미완	
6	설정식 (薛貞植)	青春	漢城日報	1946.5.3.~ 1946.10.16.	75	미완	『青春』(민교사, 1949)
7	안석주 (安碩柱)	별	水産經濟 新聞	1946.6.10.~ 1946.6.25	12	미완	
8	김남천	東方의愛人	藝術通信	1946.9.5.~ 1946.12.14.	55	미완	1946.11.5.(34 회)부터 확인 가능.
9	김남천	十月	光明日報	1947.7.1.~ 1947.8.14.	28	미완	
10	김말봉 (金末峰)	카인의 市場 ²⁴⁾	婦人新報	1947.7.1.~ 1948.5.8.	108	미완	『화려한 地獄』(문연사,1 952
11	박종화	青春勝利	自由新聞	1947.9.1.~ 1947.12.27	109	완결	『青春勝利』(수 선사, 1949)
12	정비석 (鄭飛石)	薔薇의季節	中央新聞	1947.9.9.~ 1948.3.30.	152	완결	『薔薇의 季節』(창광사, 1949)
13	홍효민 (洪曉民)	永生の 密使	工業新聞	1947.10.1.~ 1947.11.23	46	미완	『永生の 密使』(치형협회 , 1949)
14	다몽생 (多夢生)	夢中錄	朝鮮中央 日報	1947.12.10. ~1948.2.15	51	완결	온낙중, 『夢中錄』 (조선중앙일보 사,1948)
15	염상섭 (廉想涉)	曉風	自由新聞	1948.1.1.~ 1948.11.3.	200	완결	
16	이영순 (李永純)	噴煙	同光新聞	1948.1.17.~ 1948.4.22	53	미완	
17	김영석 (金永錫)	激浪	朝鮮中央 日報	1948.2.17.~ 1948.4.15.	34	미완	『격랑』(조선작 가동맹출판사, 1956)
18	박희준 (朴禧鵠)	燕姬의半生 (웃고우는 그들)	江原日報	1948.2.20.~ 1948.4.2	11	미완	
19	박영준 (朴榮濬)	寒流의魚族	부인신보	1948.9.26.~ 1948.12.31	76	미완	
20	박계주 (朴啓周)	眞理의 밤	京郷新聞	1948.9.28.~ 1949.4.23	163	완결	『眞理의 밤』(경향신문사

							문화부, 1949)
21	박중화	洪景來	東亞日報	1948.10.1~ 1949.8.24	273	완결	『洪景來』, 정음사, 1953.
22	이무영 (李無影)	피는물보다진하 다	국민신문	1948.10.11 ~10.28	18	미완	『三年』, 사상계사, 1956
23	설정식	寒流暖流	民主日報	1948.10.29. ~1948.12.3 0	47	미완	
24	이근영 (李根榮)	祖國	獨立新報	1949.1.1.~?	?	?	'연재예고'만 확인됨. ²⁵⁾
25	박태원	壬辰倭亂	서울신문	1949.1.1.~ 1949.12.13.	273	1부 완결	
26	윤백남 (尹白南)	回天記	自由新聞	1949.4.10.~ 1949.9.23	139	완결	
27	김영수 (金永壽)	波濤	京鄉新聞	1949.4.24.~ 1949.12.31	229	완결	
28	박태원 (朴泰遠)	群像	朝鮮日報	1949.6.15.~ 1950.2.2	193	1부 완결	
29	염상섭	無風帶	호남신문	1949.7.1.~ 1949.9.25	56	미완	
30	김동리 (金東里)	解放	東亞日報	1949.9.1.~ 1950.2.16	156	완결	
31	홍목춘 (洪木春)	醉香亭	國都新聞	1949.9.15~ 1950.2.7	107	미완	
32	황백영 (黃白影)	天地玄黃	忠淸每日	1949.12.1.~ 1949.12.29	19	미완	
33	최독견 (崔獨鵠)	새벽	서울신문	1949.12.14 ~1950.4.6	62	미완	
34	이무영	農民	漢城日報	1950.1.1.~ 1950.5.21	100	1부 완결	
35	정비석 (鄭飛石)	青春山脈	京鄉新聞	1950.1.1.~ 1950.6.25	147	미완	『青春山脈』, 문성당, 1952.
36	염상섭	暖流	朝鮮日報	1950.2.10.~ 1950.6.28.	125	미완	
37	윤백남	颱風	東亞日報	1950.2.17.~ 1950.6.27	130	미완	
38	엄흥섭 (嚴興燮)	野生草	聯合新聞	1950.2.21.~ 1950.6.27	93	미완	
39	김영수	季節風	國都新聞	1950.3.1.~ 1950.6.25	98	미완	
40	정인택	青葡萄	自由新聞	1950.5.5.~	43	미완	

	(鄭人澤)			1950.6.26			
41	이무영	그리운 사람들	서울신문	1950.6.1.~1950.6.27	27	미완	

[표에서 제시한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총 41편이다. 그간 이 시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선행연구 중 서지적 오류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지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연재가 확인된 것들만 목록에 포함했다.²⁶⁾ 이들 소설은 ‘長篇小說’, ‘長篇連載小說’, ‘連載小說’, ‘歷史小說’, ‘長篇歷史小說’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장편이라는 언급 없

- 23) 함대훈의 「전쟁과 무장평화」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회(3월 25일)부터 확인가능하다. 1회는 『가정신문』의 창간호인 3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실렸을 것이다.
- 24) 김말봉의 「카인의 市場」이란 제목 표기는 연재 당시 ‘佳人の 市場’으로도 표기되었으나, ‘佳人の 市場’은 연재예고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카인의 시장’이라고 표기한다.
- 25) 1월 1일부터 연재하기로 한 「조국」의 연재예고에서 작가는 “八一五 해방전의 조국과 해방후의 조국”의 “역사적시대성”을 “정확히 분석하므로써 조국의 구상”을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립신보』, 1948.12.29.)
- 26) 김동인의 「乙支文德」과 이광수의 「서울」은 제외했다. 『김동인전집』(조선일보사,1987)에서 「을지문덕」은 1948년 10월부터 1949년 7월 14일까지 『태양신문』에 연재됐다고 하나, 연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길, 「해방기에서 한국전쟁기까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전개」(『대중서사연구』 28, 2012) 162-163면 참고. ; 이광수의 「서울」은 1950년 『태양신문』에 연재됐다고 하나, 1950년 『태양신문』의 소실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김용환의 「文壇漫景」(『서울신문』, 1950.4.16.)을 보면 1950년 4월 즈음 이광수가 「태양」을 연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가운데 맨 위, “춘원 「서울(2)」 그림. 말풍선 “재미없거들랑 그만두라고 하시요.”



이 ‘연재소설’과 ‘역사소설’의 부제가 있는 경우 연재예고와 연재횟수 등에서 장편으로 파악된 것은 [표]에 포함했다.²⁷⁾ 이 시기 작품은 대부분 미완으로 발표되었다. 미완작 중에는 작가의 사정으로 연재 중단한다는 사고(社告)가 있는 것도 있으나, 대다수가 별도의 사고 없이 중단되었다. 비록 미완작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당대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장편이 연재된 셈이다.

해방기 가장 많은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발표한 작가는 김남천과 염상섭, 박종화, 이무영이다. 김남천과 염상섭은 ‘동시대 동공간’을 배경으로 각 3편씩 발표했으며, 박종화는 역사소설 외 3편을 발표했다.²⁸⁾ 해방기 첫 신문연재장편소설은 김남천의 「1945年 8.15」(1945)다. 두 번째는 「1945年 8.15」보다 한 달 정도 뒤늦게 연재를 시작한 박종화의 「민족」(1945)이다.²⁹⁾ 김남천은 1945년 해방직후부터 1947년 월북직전까지 2작품을 동시

27) 대표적으로 『자유신문』에 연재된 「1945년 8.15」는 ‘連載小說’로 표기됐으며, 「청춘승리」는 연재예고에 “新作小說”로 소개됐지만, 연재분량을 보면 장편임을 알 수 있다. 「효풍」은 부제가 달리지 않았지만, 연재예고에 “장편 「효풍」”이라고 소개됐다. 애매한 것은 이무영의 「그리운 사람들」이다. 이무영의 「그리운 사람들」은 『서울신문』에 1950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27회 연재된 미완작이다. 이 작품은 기획단계에서 장편으로 기획됐는지, 중단편으로 기획됐는지 파악 불가능하다. 연재예고에는 장,단편에 관한 언급 없이 ‘현대소설’로 소개했고, 1회부터는 ‘連載小說’이라는 부제를 달고 연재됐다. 연재예고에서 이무영을 그간 장편소설 다수를 창작한 작가로 소개하고, 그 이전에 『서울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 「새벽」도 ‘連載小說’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무영의 「그리운 사람들」도 장편소설로 기획하고 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표]목록에 포함했다.

28) 신문 이외에 잡지발표작까지 합치면 김남천 작품은 총 4작품으로 해방기에 가장 많은 장편소설을 남겼다. 다만, 모두 미완작이다. 김남천이 이 시기 소설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가능하다. 첫 번째는 식민지 시기에도 김남천은 장편소설의 경우 모두 미완작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정치,사회적 혼란, 세 번째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작품을 거의 동시에 썼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9) 『중앙신문』은 박종화의 「민족」 연재에 앞서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2대장편소설”을 기획하고 박종화와 이태준에게 청탁을 부탁하였는데, 두 작품이 제목이 우연히 “「민족」(民族)으로 일치되어 박종화의 “근대소설”을 우선 연재하기로 하고, 이태준의 “현대소설”을 연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新文學創造의 標塔 民族』, 『중앙신문』, 1945.11.1) 그러나 이태준의 「민족」은 연재되지 않았다.

에 발표하기도 했으며, 박종화는 1945~1948년까지 1년에 한 편씩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염상섭은 1948년 「효풍」을 시작으로 「무풍대」(1949), 「난류」(1950)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무영은 1948년 「피는물보다진하다」를 발표하고, 「농민」(1950)을 발표한다. 「농민」 1부를 완결하자마자 해방과 자유연애를 다룬 대중소설 「그리운 사람들」(1950)을 연재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연재 중단한다. 김남천, 박종화, 염상섭 이외에도 설정식, 윤백남, 김영수, 박태원, 정비석 등은 각 2편의 연재소설을 발표했다. 해방 후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장을 맡았던 설정식은 첫 장편소설 「청춘」(1946)을 시작으로 「한류난류」(1948)를 발표했다. 「청춘」의 경우 근대미술가 이쾌대가 삽화를 맡았다. 비록 이쾌대의 삽화는 6월 23일 35회까지만 연재되었지만, 이쾌대의 인쇄미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윤백남은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역사소설 「회천기」(1949)를 시작으로 이듬해에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을 그린 「태풍」(1950)을 연재했으며, 박태원은 역사소설 「임진왜란」(1949)을 연재하면서 「군상」(1949)의 연재도 시작했다. 이 밖에도 방인근, 안석주, 김영석 등 좀처럼 장편을 쓰지 않던 작가들도 해방 후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썼다. 방인근의 「애국자」(1946)는 미완작이지만, 방인근의 해방 후 포지션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다. 삽화가 안석주도 해방 후 첫 장편소설을 연재하며 자신의 작품에 직접 삽화도 실었다. 1940년에 등단하여 노동소설작가로 알려진 김영석은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며 첫 장편 「격량」(1948)을 연재했다. 후술하겠지만, 「격량」은 1947~1948년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문제작이다.

신진작가 이영순, 박희준, 황백영, 홍승구 등도 장편을 연재한다. 이영순은 연재예고에서 충북 출신으로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재학 중 학생으로 출전한 경력을 가진 작가로 소개된다. 그의 장편 「분연」(1948)은 그간 『전북일보』에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동광신문』에 미완으로 발표했다. 이 작품은 중국여성이 독립운동가이자 화가였던 한

인물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서사다. 한국전쟁 후 이영순은 주로 시를 발표하며 문단활동을 이어간다. 박희준의 「연희의 반생」(1948)은 해방의 현실과는 무관한 작품으로, 연희라는 인물의 사리사욕을 다루고 있는 권선징악의 소설로 장편으로 기획했지만, 11회를 끝으로 더는 발표되지 않는다. 신문은 지속적으로 발간한 것으로 보아 작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추측된다. 황백영은 “동방신문 혹은충청매일등 언론계에투신하여 많은 업적을남긴 충남언론계의 원로”로 소개된다.³⁰⁾ 그의 「천지현황」(1949)은 젊은 남녀의 로맨스를 다룬 소설이다. 목춘 홍승구 역시 언론인이다. 홍승구의 「취향정」은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을 다룬 소설로 107회까지 연재된다.³¹⁾ 이들 신진작가의 작품은 서사적 구성이라 할 만한 소설미학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신진작가의 장편연재는 작가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신문사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장편소설연재는 곧 정기적 독자의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각 신문사는 경쟁적으로 연재소설을 게재했다. 그러나 1947~8년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의 가중과 중견작가의 월북으로 인하여 작가의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이에 장편소설현상모집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다. 가령, 『국제신문』은 “신문학운동의 일조로써 널리 장편소설을 천하에 공모한다”는 광고를 내며 30만원의 상금을 내세웠지만 당선작은 없었다.³²⁾ 이에 일부 신문은 지역인사나 언론인을 통해 장편연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가를 확보하며 장편을 연재한 신문사들이 있다. 『자유신문』이 대표적이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자유신문』은 김남천→박종화→염상섭→윤백남→정인택으로 이어지

30) 「作者紹介: 黃白影 長篇小說 天地玄黃」, 『忠淸每日』, 1949.11.29.

31) 연재중단된 후 이를 뒤인 1950년 2월 9일자 신문에 “筆者의 事情으로 二三日間休載”한다는 사고가 실렸지만, 107회를 끝으로 연재되지 않았다. 『국도신문』은 1950년 3월 1일부터 김영수의 「계절풍」을 연재한다.

32) 「신문학건설의 금자탑: 장편소설현상모집」, 『국제신문』, 1948.9.8.

면서 장편연재를 지속한다. 『자유신문』은 구매일신보의 편집국장이던 정 인익이 동사 출신들과 1945년 10월 5일 창간한 일간지로 초기에는 정진 석이 발행 겸 주필을 맡았다. 『자유신문』은 초기에 중도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46년 5월 신탁통치 문제로 우익 청년단체의 습격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신익희가 사장으로 위임된 후부터는 우익세력 중심의 정치 기사가 편성된다.³³⁾ 신문의 정치적 성향은 연재소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남천의 연재소설은 1946년 5월 우익 청년단체의 습격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재 중단되었고, 우익경향의 신익희의 취임후에는 박종화의 작품이 연재된다. 또한 대표적 우익지로 우익테러를 공공연히 선동한 『대동신문』은 1946년 방인근의 「애국자」를 연재했지만, 같은 해 5월 테러를 선동한 기사로 발행정지되면서 방인근의 소설도 연재중지된다.

해방기는 문인이 신문 편집에 간여한 바가 많았는데, 문인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에 장편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태준은 『현대일보』의 주간을 맡으면서 「불사조」(1946)를 연재했으며, 김동리는 『민국일보』의 편집국장을 맡으면서 「해방」을 기획했다. 『민국일보』는 1948년 12월 해방 후 김동리의 첫 장편소설 「해방」의 연재예고를 여러 차례 신는다.³⁴⁾ 연재예고에서 김동리를 “본보편집국장”으로 소개하며 작가와 『민국일보』의 연관성을 강조했지만, 연재하기로 한 1949년 1월 1일 『민국일보』는 발간되지 않았고,³⁵⁾ 「해방」은 같은 해 9월 1일 『동아일보』에 연재된다.

33) 윤덕영, 앞의 논문, 357면.

34) 김동리는 「해방」의 연재예고에서 “장편소설을 공개하기로는 이것이 처음이다”(「長篇小說 解放」, 『민국일보』, 1948.12.22.)라고 했다.

3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1월 23일에 창간한 『민국일보』는 친정부적, 우익적 성향의 신문이다. 발행인 조중서, 편집국장 김동리, 편집인 백석기, 사회부장 겸 문화부장 조연현 등으로 주요 간부진을 구성했다. 『민국일보』는 현재 국회도서관에 1948년 11월 23일(1호)가 소장되어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1948년 11월 26일(4호)부터 12월 31일(34호)까지 소장되어있다. 그 이후에도 신문을 발간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 다만, 1949년 1월 1일부터 연재하기로 했던 「해방」을 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49년 이후에는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방기 신문연재장편소설은 신문의 정치적 방향성과 궤를 같이했다. 정치적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신문연재소설이 당시 대중에게 신문의 정치적 이념과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면서 문학과 신문은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 혼란기에도 끊임없이 연재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신문의 정치적 이념을 대변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치적이념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신문의 정간과 폐간은 연재소설에도 영향을 미쳐 미완작이 속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 완결되지 않은 현재의 서사

해방기 신문연재장편소설은 대략 70%가 미완작이다. 해방기 소설은 미완작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미완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작가들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하며 끊임없이 진화 중인 당대 현실과의 조우를 가능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라 다소 범박하게 정리하자면, 이 시기 소설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시대 동공간을 배경으로 당대 현실을 그린 소설, (2)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민족과 독립운동의 이념과 의의를 살펴보는 소설, (3) 식민지를 배경으로 청년의 고민과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이 중 (1)의 비중이 가장 많다. (2)의 경우 주로 1890~1919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3)의 경우 작가 자신의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청년이 해방이 이르기까지의 좌절과 희망, 분투를 담고 있다.

(1)의 경우 크게 ① 민족국가건설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소설과 ② 당대 연애사를 다룬 세태소설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작품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1945년 8.15」, 「전쟁과 무장평화」, 「별」, 「동방의 애인」, 「시월」,

「카인의 시장」, 「효풍」, 「격랑」, 「진리의 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무풍대」, 「해방」 등이다. ②의 작품은 「장미의 계절」, 「한류의 어족」, 「과도」, 「새벽」, 「청춘산맥」, 「난류」, 「야생초」, 「계절풍」, 「청포도」, 「그리운 사람들」 등이다.

(1)-①에 속하는 작품은 해방기 신문연재소설의 1/4을 넘게 차지한다. 이들 소설은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① 좌익계열의 작품으로 김남천의 「1945년 8.15」, 「동방의 애인」, 「시월」과 김영석의 「격랑」이 있다. 이 작품들은 해방직후 좌우익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담론과 임시정부의 입국, 좌익운동노선의 방향성과 내부갈등 등을 다룬다. 김남천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수립까지 국가체제의 공백이라는 일종의 진공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을 좌익노선을 그 중심에 두고 해답을 찾고 있으며, 김영석은 해방기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좌익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의 활동과 노동자의 자기비판에서 찾고 있다. 이들 작품은 민족국가건설 이념의 방향성을 좌익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익노선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좌익과 우익노선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주인공(「1945년 8.15」의 문경, 「동방의 애인」의 혜란)과 좌익노선의 내부갈등과 자기비판(「시월」의 동호, 「격랑」의 건영³⁶⁾)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1)-① 우익계열의 작품으로는 함대훈의 「전쟁과 무장평화」와 이무영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고 김동리의 「해방」이 있다. 「전쟁과 무장평화」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미완작으로, 「전쟁과 무장평화」는 연재가 끝난 직후 결론을 보완하여 단행본 『청춘보』(1947)로 출간하였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재지인 『국민신문』이 필화사건으로 편집국장

36) 김영석이 월북 후 개정보완한 1956년 작은 전평의 내부갈등과 주인공 건영의 자기비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좌익계열의 전평과 우익계열의 대한노동총과의 갈등, 대한노동총의 폭력성을 부각한다

이 기소되면서 폐간되자 18회로 연재 중단된 후, 1956년 단행본 『삼년』으로 출간된다.³⁷⁾ 그간 해방기 우익계열의 문학은 ‘문학의 정치성’을 논의한 좌익문단과 달리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방기 신문연재장편소설을 세밀히 살펴보면 우익계열 역시 문학과 정치가 별개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정청 공보국장을 지낸 함대훈은 1946년 3월 「전쟁과 무장평화」를 연재한다.³⁸⁾ 「전쟁과 무장평화」의 주인공 광성식은 러시아문학을 전공한 지식인이다. 러시아문학을 전공한 광성식은 해방직후 고향 이북땅에서 “붉은군대”의 통역을 맡으며 “미완성”의 “조선 독립”을 위해 애쓰지만, 조선민주당 간부였던 그는 공산당 정책에 반대하다가 감옥살이를 한다. 이후 광성식은 여동생이 있는 서울로 쫓기다시피 와서 “민주청년동맹 간부”들과 정치적 행동을 모색한다. 소설은 공산당의 토지개혁과 인민위원회 조직에서 민주당의 배제, 공산당을 반대하는 인물을 ‘친일파’로 몰아넣는 프레임을 장황하게 비판하며 조선민주당을 ‘절대 선’으로 묘사한다. 러시아 문학에 전공한 광성식이 소비에트에 품고 있었던 아련한 동경마저 1947년 단행본에서 “짜베트의 외교는 확실히 혁명시대와는 달랐다”라고 서술하며, 공산당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다. 「전쟁과 무장평화」는 좌익 공산당체제를 비판하고 부정함으로써 우익정당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는 소설을 연재할 당시는 좌익에 비하여 우익정당의 정치적 이념과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앞서 살펴본 좌익계의 소설과 다른 방향에서 우익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과 무장평화」는 『가정신문』 연재지의 주 독자층이

37)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욱, 「이무영의 「삼년」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50). 우리말글학회, 2010. 참조.

38) 「전쟁과 무장평화」는 『가정신문』에 총59회 연재되었지만, 12회부터 46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가능한 신문연재본과 단행본 『청춘보』(1947)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문연재본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여성이었기에 ‘여성해방’에 관한 서사도 삽입된다.³⁹⁾

「전쟁과 무장평화」를 제외한 나머지 두 편은 모두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 발표한 소설이다. 이 시기 우익정당의 정치적 포지션이 확고해지고 세력도 비대해지면서 우익계열의 문인들은 우익계열의 신문에서 과감히 정치적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무영은 “이현실을정리할역량이 없”어서 “해방후 삼년간 나는거이붓을논채로 해방이업시안자있기만했”지만 “피가물보다진하다”라는 민족을 발견하고 붓을 들었다고 고백한다.⁴⁰⁾ 그러나 이무영이 붓을 든 구체적 이유는, 김종욱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수립이후 작가의 정치적 입장이 이승만 노선으로 정리되었기에 해방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장편을 연재할 수 있었다.⁴¹⁾ 해방 후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한 김동리는 “우리해방을 소설로써볼 생각은 해방직후부터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민국정부의 국제적 승인도있고하니 어느정도 기회가있었다고하겠다. 나는이 소설에서 해방후의 우리의현실을 그려내려고 한다”라고 언급하며,⁴²⁾ 당대 현실을 진단하는 하나의 확고한 관점이 생겼음을 드러낸다. 그 확고한 관점은 물론, 우익계열 정부수립의 정당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18회밖에 연재되지 않았기에 애초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1956년 사상계에서 출판한 단행본을 참고하면 최일이라는 공산주의자의 당파성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폭력성을 강조한다.⁴³⁾ 친정부적 성향의 『민국일보』의 창간과

39) 가령, 주인공 광성식은 “새 세대의 여성으로서 조선독립에 이바지 하는 일”을 찾을 것을 독려하며 남녀평등 사상을 옹호한다.

40) 작자의 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국민신문』, 1948.10.8

41) 김종욱, 앞의 논문, 10면

42) 작자의 말, 「長篇小說, 解放」, 『민국일보』, 1948.12.22.

43)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1956년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앞서 발표한 18회분을 개정보완한다. 연재본에서도 해외파를 옹호하며(6회, 1948.10.16.) 우익정치를 옹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단행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낸다. 가령 7회(1948.10.17.)의 경우 해방직후 조국으로 돌아오는 배안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장면을 단행본에 삽입했다.

더불어 기획된 김동리의 「해방」은 작자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민국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얻은 정부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해방」에서 공산당은 비인간적인 ‘빨갱이’로 불리며 ‘적’으로서의 외부집단으로 규정된다.

정부수립 이후 우익계열의 신문연재장편소설의 정치성은 독자에게 반공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앞서 살펴본 좌익계 정치소설이 대중에게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우익계 정치소설은 ‘왜 그들(공산당)이 적(敵)이어야 하는가’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①에서 중간계열의 입장을 피력한 작품으로는 염상섭의 「효풍」과 「무풍대」를 들 수 있다. 염상섭의 「효풍」과 「무풍대」는 연애서사를 다루면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 요컨대 두 작품은 신문연재소설의 대중성을 기반으로 대중에게 이념적 견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은 두 작품을 1948년 정부수립 이전부터 이후까지 발표하는데, 「효풍」을 연재하기로 기획한 1947년 12월은 중간파에게는 그야말로 정권수립에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효풍」의 「스왈로 회담」(1948.3.17-1948.3.25) 부분에서 주요인물 박병직은 미군정의 정치적 실패를 지적하고, “우리는 무산독재도 부인하지마는 민족자본의 기반도 부실한 뿌르조아 독재나 뿌르주아의 아류(亞流)를 굽어모은 일당독재를 거부”한다고 언급하며, 당대 중간파의 이념적 중립화론 그대로 대변한다.⁴⁴⁾ 중도세력을 표방하는 병직의 논리는 이념적 중립화론을 내세울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1948년 8월 정

44) 1947년 12월 20일 일부 중간파세력은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식을 거행하고 민족의 자주독립과 미소간의 친선과 조화,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사회도 무산계급 사회도 아닌 “조선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건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남북협상을 제시하며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반대하는 노선을 발표한다. 「민족자주연맹 규약, 선언, 강령, 정책」, 한국안보교육협회편, 『서울시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등록철』, 1990, 772면.

부수립이후의 서사는 병직이 사라지고 마지막 결말부에 느닷없이 다시 병직이 나타나 “조선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해란과 결합하는 낭만적 결말로 마무리된다. 「효풍」은 좌우도 아닌 ‘조선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다지만, 정부수립이후 그 타당성을 잃고 이념의 이상화를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 정부수립 이후 「무풍대」에서도, 중간파의 입지가 사라진만큼, 이념적 중립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방향보다는 주요인물 정임의 방북사건을 둘러싼 갈등과 5.10 선거의 부정성 등을 서술하며 정부수립이후 극단적 우익세력의 확장을 경계한다. 중간계열의 신문연재장편소설은 ‘조선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 이외에도 (1)-①에는 『수산경제신문』의 창간과 함께 연재된 안석주의 「별」, 김말봉의 「카인의 시장」, 박계주의 「진리의 밤」이 있다. 「별」은 장편소설로 기획되었지만 12회를 끝으로 연재중단된다. 사고가 없어 중단이유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별」의 경우 작가의 역량미달로 짐작된다. 「별」은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철수가 감옥에 나와 친구 창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7회까지 해방의 기쁨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창식을 만난 이후에도 철수는 재차 해방의 기쁨만 읊는다. 물론 연재횟수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12회 동안 구체적 사건이 부재하며 당대의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에 장편의 서사로서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인의 시장」과 「진리의 밤」은 공창제폐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창제폐지는 해방기 여성해방의 상징적 사건이다.⁴⁵⁾ 1930년대 「짚레꽃」, 「밀림」 등 신문연재장편소설로 인기를 끈 김말봉은 해방직후 좌우익연합단체인 ‘폐업공창구제연맹’의 회장을 맡으면서 공창제폐지를 다룬 장편을 『부인신보』에 연재한다. 「카인의 시장」은 공창제폐지령 공포 전후로 연재된 작품으로, 작가 김말봉은 저널리즘의 대

45) 여성단체는 1920년대부터 공창제폐지운동을 실시하였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1946년 8월 14개의 여성단체는 ‘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하고 즉각 공창폐지를 시행하는 법률제정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7년 11월 공창제도 폐지령이 공포됐다.

중성을 활용하여 공창제폐지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한다. 반면 「진리의 밤」은 공창제폐지령 공포 이후에 발표된 작품으로 공창제폐지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공창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여성주체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⁴⁶⁾ 두 작품은 해방기 공창제폐지라는 여성해방의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여성주체의 위치를 살펴보고 있다.

(1)·②의 연애편속서사는 정비석의 「장미의 계절」을 제외한 9편 모두 1948년 단독정부수립 이후에 연재된 것이다. 단독정부수립 이후는 검열로 인해 한정된 또는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⁴⁷⁾ 이로 인하여 신문연재소설은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전에 보여준 정치성이 소거되고 통속성/대중성 위주의 연애서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정비석의 「장미의 계절」은 1947년 9월부터 1948년 3월까지 152회 연재한 후, 1949년과 1954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한다. 신문연재본의 연재예고에서 편집자는 “이소설이말하는바 『민족의 길』을 보고자한다”라고 서술한다.⁴⁸⁾ 그런데 1954년 대조서관에서 정비석은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解放後 政治意識은 조선천지를 휩쓸고 있”던 시기에 이와는 다른 길인 “靑春男女와 그 周邊”을 그려보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장미의 계절」을 정치적 바깥에서 썼다고 고백한다.⁴⁹⁾

46) 「카인의 시장」과 「진리의 밤」의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임미진,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여성 주체화 방식: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 15(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4)와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의 한계」(『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참조.

47) 해방기 문학과 검열에 대해서는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임경순, 「검열논리의 내면화와 문학의 정치성」(『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참조.

48) 「薔薇의 季節 九日부터」, 『중앙신문』, 1947.9.7. 『중앙신문』의 연재예고에는 ‘작가의 말’이 실리지 않았다.

49) 물론 정치적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인물 강시웅은 “정치도물론시급 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정치는 민족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정치여야할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에게는무엇보다도 계몽운동이시급합니다”(47.9.14)라고 말하며 출판계몽운동을 전개한다. 이후 강시웅 과학서적과 농민서적 등을 출판하며 독서회를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지

「장미의 계절」도 그러하지만, (1)-②의 서사에서 「새벽」, 「야생초」, 「청포도」, 「그리운사람들」을 제외하면 여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이뤄진다. 해방기는 정치사회적으로 여성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두드러졌던 시기다. 여성에게 8.15는 식민지와 남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중적 해방’을 의미했다.⁵⁰⁾ 해방기는 “빨래처에서도 부인참정권을 외친다”할 정도로 남녀 평등권에 대한 담론이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다.⁵¹⁾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신문연재장편소설에서는 여성의 위치를 재고하는 연애서사가 등장한다. 정비석은 「청춘산맥」의 연재예고에서 “오늘날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극히 저속한 유행어”가 된 것을 비판하며 여성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남성들과 과감히 싸우는 동시에안으로는여성들자신과도 눈물겨운투쟁을 전개하지 않을수없는 한여성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겠다고 말한다.⁵²⁾ 「청춘산맥」에서는 부정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 경란을 등장시킨다. 경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소송을 맡은 서변호사는 해방 후 부도덕한 남편을 상대로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하며,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난류」의 연재예고에서 작가 염상섭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새나라, 새 시대에 반드시 나와야 할 이상적 새 여성은 그 어떠한것일 까를 머리에 그려보면서 한편으로는 하필 여성뿐이리요 남성도 새 조선 새 시대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될 이상적 타일은 반드시 있으려니하고

만, 서사에서 출판계몽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경운과 경제 자매의 얽힌 연애와 해방 후 세대에 중점을 둔다.

50) 여운형, 「여성해방의 이념」, 『여성문화』, 1945.12. 宋休理의 「연애론」(『여성문화』, 1945.12.), TS, 「참정권에 대하여」(『새살림』, 1947.2.), 趙珪熙의 「여성운동의 지향」(『민성』, 1948.8.) 등에서는 여성해방을 논하면서 8.15를 민족해방과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이중적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1) 「미소공위에 호소하는 인민의 소리: 주부편(7)」, 『경향신문』, 1947.5.3.1.

52) 작가의 말, 「青春山脈」, 『경향신문』, 1949.12.15.

그 모습을 상상(想像)하여 보는것이다. 「長篇小說 暖流」, 『조선일보』, 1950.2.3.

앞선 (1)-①에서 살펴본 염상섭 소설의 연재예고와는 사뭇 다르다. “새벽바람은매웁고 어지럽습니다”로 시작하는 「효풍」의 연재예고에서 해방된 조국은 “혼란” “무질서” “참담”이라는 언어로 얼룩진 공간이다.⁵³⁾ 작가는 그 혼란과 무질서한 공간에서 곧 동이 틀 것을 기대하며 「효풍」을 연재했다고 고백한다. 「무풍대」의 연재예고에서도 해방된 조국은 여전히 “격랑(激浪)에 부대끼는” 공간이다.⁵⁴⁾ 작가는 다시 한번 ‘무풍대’를 기대하며 해방된 조국의 정치적 가능성을 살펴본다. 반면, 「난류」의 연재예고에서는 혼란한 정치상황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새 시대”의 “이상적 새 여성”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변화에 집중한다.

해방기의 연애 풍속을 그린 신문연재장편소설에서 여성주동인물은 민주주의를 말하며 여성의 권리를 언급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안착할 곳은 가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박함, 정숙함, 경건함이다. 가족을 돌보며 진실한 사랑을 좇는 경옥(「장미의 계절」), 가족애를 위해 결혼을 결심한 성희(「한류의어죽」), 강렬한 삶의 의지로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는 리애(「파도」), “건전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덕희(「난류」), 사랑하는 남자만 바라보는 봉희와 교양과 품위를 가진 은주(「야생초」), 방탕한 부모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도움을 받는 은미(「계절풍」)가 그들이다. 반면, 부정의 대성으로서의 여성은 화려함, 허영심, 방탕함으로 상징되는 미국문화를 받아들인 여성이다. 해방 후 상해에서 돌아온 댄서로 부를 좇는 현마(「장미의 계절」),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의순(「난류」), 서양인들과 댄스파티를 즐기는 혜주와 애경, 박매리(「새벽」), 가정생활을 도외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최마리아(「계절풍」) 등이 그들이

53) 작자의 말, 「曉風」, 『자유신문』, 1947.12.30.

54) 작자의 말, 「無風帶」, 『호남신문』, 1949.6.11.

다. 남성주동인물은 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지만, 민족애를 실천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꿈꾼다. 이들에게는 강건함, 고결함이 요구된다. 민족애를 실천하며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시웅(「장미의 계절」), 민족경제를 생각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꿈꾸는 택진(「난류」), 예술의 건강성과 존귀함을 추구하는 형도(「야생초」), 강인한 도덕성을 가진 종환(「계절풍」), 타협을 싫어하고 해방된 민족을 생각하며 부모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영택(「새벽」) 등이 그들이다. 적대적 인물로서의 남성은 탐욕,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방으로 인해 한 몫 챙기려는 모리배, 모략가들이다. 여성을 겁탈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흥태(「청춘산맥」), 해방 후 밀수모리를 하며 돈으로 여성의 환심을 사려는 허철(「야생초」) 등이 그들이다. 기실, 이러한 인물유형은 1930년대 신문연재장편소설의 대중적/통속적 연애 구도를 계승, 변주한 것이다.

(1) 동시대 동공간을 모델로 한 소설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설은 (2)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민족과 독립운동의 이념과 의의를 살펴보는 소설이다. (2)는 박종화의 「민족」과 「홍경래」, 홍효민의 「영생의 밀사」, 다몽생의 「몽중록」, 박태원의 「임진왜란」과 「군상」, 윤백남의 「회천기」와 「태풍」, 홍목춘의 「취향정」 등 9편이다. 「임진왜란」, 「군상」을 제외하면 개화기전후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작품이다.

「민족」은 해방직후 신문에 연재된 첫 번째 역사소설로 대원군과 민중전의 권력다툼을 비롯한 외세의 개입, 민중의 항거 등 구한말의 정치사를 다룬다. 「취향정」과 「태풍」도 대원군과 민중전의 서사다. 「민족」은 중전보다는 대원군과 민씨일가의 대립을 부각하고 정사를 바탕으로 실제인물의 행위와 발언에 초점을 둔다. 「취향루」는 연재예고에서 “대원군(大院君)과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중심으로 가지가지의 파란곡절을 그리”겠다고 했지만,⁵⁵⁾ 실제로 연재된 분량은 대원군이 집권하기까지의 과정으로 대

55) 「歷史小說 醉香亭」, 『국도신문』, 1949.9.8.

원군과 조대비의 탐욕에 중점을 두고 서사화된다. 「태풍」은 민중전에 초점을 두고 민비와 대원군의 갈등을 그린다. 「민족」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구한말의 사건을 전하려 했다면, 「취향정」의 경우 작가의 주관적 판단과 역사적 사실을 장황하게 논한다. 「태풍」은 야사를 중심으로 민비가 대원군을 피해 궁을 달아나는 모습, 점쟁이의 출현 등 신문소설의 대중적/통속적 요소를 삽입한다.

이외에도 헤이그 특사 이준의 일대기를 그린 「영생의 밀사」와 1800년대 평양농민전쟁을 다룬 「홍경래」,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서사를 다룬 「회천기」가 있다. 「영생의 밀사」는 해방직후 두 번째 역사소설로, 이준과 역사적 사건을 입체적, 역동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영웅으로서의 이준의 일대기와 역사적 사실 등을 단순한 지식 차원에서 나열하고 있어서 소설로서의 서사미학은 부재한다.⁵⁶⁾ 「홍경래」와 「회천기」는 민중혁명의 영웅적 인물을 중심으로 신문소설의 대중성/통속성을 적절히 가미하여 혁명과 민중의 역사를 서사화한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가 온낙중의 「몽중록」은 근대소설이라기보다는 고전소설의 몽유록에 가깝다. 「몽중록」은 서재를 지키는 사내가 꿈속에서 김옥균, 이완용, 루즈벨트 등 역사적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여러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가치평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살펴본다.

해방기 역사소설은 신문소설의 대중성/통속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전망의 낙관성을 드러낸 소설도 있지만, 역사의 사실성을 단순히 강조하거나 작가의 주관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됨으로써 역사‘소설’로서의 형상화와 입체감이 부재한 소설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신문연재장편 역사소설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대중에게 자주적민족건설의 현재

56) 「영생의 밀사」는 1947년 11월 46회를 끝으로 더는 연재되지 않는다. 1949년 연재본을 개정,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한다. 46회는 일성 이준이 활동했던 독립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탐관오리를 들고 있다면, 개정본에서는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이후 단행본의 서사는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갈등과 헤이그특사로서의 이준의 활동을 서술한다.

와 그 전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신문연재장편소설의 (3)유형은 식민지를 배경으로 청년의 고민과 갈등을 그린소설이다. 「애국자」, 「청춘」, 「청춘승리」, 「한류난류」가 여기에 속한다. 방인근의 「애국자」가 연재된 『대동신문』은 우익계 신문으로 1946년 5월 여운형 암살사건 찬양기사로 미군정의 정간처분을 받았다. 이에 「애국자」도 5월 16일 46회로 연재중단된다. 방인근은 「애국자」의 연재예고에서 혼란한 해방정국의 지도자를 꿈꾸며 소설을 연재한다고 언급한다.⁵⁷⁾ 그 지도자는 당연 ‘애국자’라는 것인데, 연재본에서는 식민지시대 독립운동가로 등장하는 정철웅의 이념적, 정치적 사상과 포지션보다는 철웅과 철웅을 좋아하는 애경과 매수, 그리고 철웅과 애경 사이를 휘방 놓는 태수 등 젊은 청춘남녀의 애정 관계를 중점으로 서사화된다. 박종화의 「청춘승리」는 해방 후 박종화의 두 번째 신문연재장편소설로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을 다룬다. 박옥란의 어린시절부터 그가 19살이 되던 해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에게 희롱을 당한 후,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옥에 가친 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은 해방을 맞이하자 민족반역자 장천이 자결하고 그의 자식을 옥란의 남편 일파가 거두며 이승만의 귀국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끝난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이면서 조국을 잃은 청춘남녀의 로맨스를 통해 해방정국을 낙관적으로 모색한다.

설정식의 「청춘」과 「한류난류」는 식민지 시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식민지 청년의 고뇌와 로맨스를 다룬다.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했던 설정식은 해방 후 두 작품에서 자신의 실제 체험을 소설에 직접 전사한다. 중국과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당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학업을 계속했던 작가의 경험을, 하와이와 뉴욕

57) “배도인제는左右도 흔들리지안코 이리뒹굴저리두이굴든 百姓들도 安定됩니다. 여기에 偉대한 船長과 船夫가있엇야하니 그들은 徹頭徹尾 正當한 「愛國者」라야합니다 나는그런時代와 人物을 이小說에 그리려는 것입니다.” 작자의 말, 「長篇小說 愛國者」, 『대동신문』, 1946.2.20.

을 배경으로 하는 「한류난류」는 1937~1940년 마운튼유니언대와 뉴욕칼럼비아대에서 수학한 작가의 경험을 서사화한 것이다. 자전적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두 작품에서 설정식은 식민지청년의 고민과 성장을 통해 해방의 당위성과 독립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1)(2)(3)의 유형 이외에도 강인한 여성의 삶을 통해 식민지시기 계몽운동과 민족의 현실을 살펴본 이태준의 「불사조」와 여선생과 여제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황백영의 「천지현황」,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뒤바뀐 운명을 그린 박희준의 「연희의 반생」 등이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신문연재장편소설은, 앞서 말했듯이, 대략 70% 이상이 미완작이다. 미완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설은 신문이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해 해방의 사건을 ‘예측(prediction)’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장편소설을 통해 불완전한 현재와의 접촉함으로써 해방이라는 사건을 끊임없이 재해석, 재평가하고 과거에 대해 숙고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늠한 것이다. 이는 해방 후 민족공동체 재건의 주역이 나아갈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4. 결론

1945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의 목록은 총 41편이다. 이 시기 작가들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총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간 산문예술은 살아있는 담론과 역사, 그리고 사회적 투쟁에 참여해왔다. 해방기 장편소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방향성의 상실로 인한 소설창작의 불가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아 나서는, 불가능한 것을 준비하고 꿈꾸면서 다시 한번 담론과 역사를 생성하는 소설창작의 가능성으로 바뀐다.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1948년 단독정부수립이후 연에서사가 주를 이루면서 민족

통합의 전망과 분단현실을 외면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작가들은 신문이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하여 해방의 '사건'을 예측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획득해갔다는 것이다. 바흐친은 한 사건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가치의 차원에서 묘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혁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소설 세계의 특징으로 보았다.⁵⁸⁾ 현실은 일시적이며 유동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실의 지금-여기를 포착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되고 절대적 과거를 그리는 것이 아닌, 형성 중인 불완전한 세계로 유인되는 것으로 일종의 혁명을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방기 신문연재소설은 현재적 사건 또는 과거의 사건을 지금-여기로 불러들여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진화 중인 당대현실(미완결의 현재)과 생생한 접촉을 가능하게 했다. 해방기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재평가, 재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8) Mikhail Mikhailovich Bakhtin,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옮김, 창비, 1988, 30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남식, 이정식, 한홍구 공편,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945~1948』, 돌베개, 1994.
 『해방공간신문자료집성』, 선인문화사, 1996.
 『경향신문』, 『동아일보』, 『민성』, 『새살림』, 『여성문화』, 『예술』, 『조광』, 『조선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www.nl.go.kr/newspaper)

2. 국내 자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작품연표』, 서울대출판부, 1998.
 김병길, 「해방기에서 한국전쟁기까지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전개」, 『대중서사연구』 28, 대중서사연구, 2012.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_____,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김재필, 「해방기 장편소설 연구: 현실인식 및 전망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종욱, 「이무영의 「삼년」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과 의미」, 『우리말글』 50. 우리말글학회, 2010.
 김주현, 「자료: 김동리의 『해방』」, 『어문론총』 37~3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2~2003.
 김한식,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 『현대소설연구』 9,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김형규, 「해방기 장편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1.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운동의 한계」,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고려대출판부, 2013.
 송현호, 『한국근대장편소설연구』, 민음사, 1992.
 안서현, 「『曉風』이 불지 않는 곳: 염상섭의 『無風帶』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9,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대중화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선칭어문』 18,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9.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 _____, 「8.15 해방 후 신문의 문화적 기능과 신문소설」, 『한국문학연구』 42,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2.
- 이양숙, 「해방 직후 문학이념과 정책논쟁: 1946.8-1946.1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5(1), 일지사, 1989.
- 이희환, 「자료:김남천 연재소설 『시월』」,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7.
- 임경순, 「검열논리의 내면화와 문학의 정치성」,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
- 임무출, 「해방 직후 한국장편 역사소설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임미진, 「해방기 김남천 문학의 혁명적 세계관과 창조적 실천의 문제」, 『어문연구』 4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 _____, 「해방기 아메리카니즘의 여성의 주체화 방식: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5(1), 한국근대문학회, 2014.
- 한명환 · 김일영 · 남금희 · 안미영, 「해방 이후 대구·경북 지역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발굴 조사 연구:격동기(1948-1962) 대구경북지역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1,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3. 국외 자료

- Lukács, Georg,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철당, 1998.
- _____, 『역사소설론』, 이영욱 역, 거름, 1999.
- Bakhtin, M.M.,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외 역, 창작과비평사, 1988.

<Abstract>

A Study on Serial Novels of Newspaper in the Age of Liberation

Lim, Mi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list of novels serialized in the liberation period and to reveal the content characteristics. The list of novels serialized in newspapers from August 1945 to June 1950 is about 40 in total. Numerous novels have been published despite political turmoil. Many unfinished novels were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Despite their unfinished novel, these novels presented a perspective for prediction of the liberation event through the popular media of newspapers. Through this,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after liberation was suggested.

Key words: The Age of liberation, Newspaper Serial Novels, Novel, Roman, Totality, Realistic Recognition

투 고 일: 2021년 11월 25일

심 사 일: 2021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12월 23일